# 연일 치솟는 금값…'金테크' 열풍 뜨겁다

#### 1돈 전년비 67% 오른 83만원…골드뱅킹 인기 광주은행 올해 골드바 판매량 100억원 육박

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금 곡선을 그리며 28.0%나 올랐다. 관련 상품에 대한 인기가 폭증하고 있다. 광주지역에서도 골드바 구매가 늘어나는 등 골드뱅킹에 대한 투자 관심이 뜨겁다.

순금 1돈(3.75g)의 시세는 82만8000원으 아져서다. 로, 전년(49만5000원) 대비 67.3%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. 3년 전(33만500원)과 기준 335건 99억1386만원을 기록 중이 비교했을 때에는 2.5배(150.5%)를 넘어 다. 지난해 말 302건 57억5306만원에서

특히 최근 2개월 동안은 가파른 우상향 4월 16일까지 골드바를 판매하지 않았음

금값이 고공행진 하면서 금 관련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.

수익성이 널뛰는 주식이나 펀드보다 안 13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자산으로 금을 지니고 있자는 심리가 높

> 실제 광주은행의 골드바 판매량은 이날 크게 늘었다. 심지어 올해는 2월 11일부터

에도 지난해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다.

3년 전인 지난 2022년(221건 58억2050 만원)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를 보인다.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은행

의 골드뱅킹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. KB국민·신한·우리은행의 잔액이 지난 으로도금의인기는 9일 기준 1조513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 높아지고 있다.

음으로 1조5000억대를 넘어섰을 정도다. 지난 3일부터 9일까지가 연휴 기간이었 음에도 지난 9월 말(1조4171억원)과 비 달러를 넘어섰을 정도다. 교해 959억원 증가한 것이다.

이 같은 추세는 미 국의 금리 인하와 글로벌 경기 불확 실성 확대가 맞물 린 결과로, 국제적

국제 금 가격은 지난 주 현물 기준 온스당 4000

전문가들은 금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.

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 고 있다.

2025년 10월 14일 화요일

자는 "경제의 불확실 대를 넘겼다. 성으로 보다 안전한 실 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 있다. 는 것 같다"고 말했다.

지며 덩달아 은 관련 상품의 판매 추세도 지 뛰었다.

### 광주은행 씨앗봉사단, 지역사회 온정 나눔 유기묘 보호소 노인복지센터 돌봄 봉사 전개

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. 사활동을 진행했다. 한 팀은 '광주 캣맘 협의회 유기묘 보호소'를 찾아 고양이 보호시설 청소, 사료 급여, 생활환경 정 비 등 유기묘 돌봄 봉사를 실시했다. 다 른 한 팀은 노인복지센터 '광주 평강의 리, 말벗 활동 등 따뜻한 손길을 나눴다.

씨앗봉사단은 JB금융그룹 (JB금융지

광주은행은 최근 임직원 지율 봉사조직 JB자산운용·JB인베스트먼트) 임직원들 인 '씨앗봉사단'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 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봉사조직이 다. '이웃의 성장이 우리 사회 나눔 씨앗 씨앗봉사단은 두 개 팀으로 나뉘어 봉 이 돼 선순환 되길 응원한다'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, 봉사단원들이 직접 봉 사 대상과 활동을 선정하는 지율적 운영 방식으로 봉사의 진정성을 높이고 있다.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"씨앗봉사단은

그룹 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 집'을 방문해 어르신 돌봄 지원, 환경 정 진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"며 "금융을 넘어 지역과 상생하는 광주은행이 되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이 주·광주은행·전북은행·JB우리캐피탈· 어가겠다"고 말했다. 이산하기자 goback@



광주은행의 임직원 자율 봉사조직 '씨앗봉사단'은 최근 유기묘 보호소와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.

### 농협 장성군지부, 아동센터에 행복나눔 기부금 '농심천심' 운동 일환…"따뜻한 상생문화 확산"

농협 장성군지부는 13일 장성군청에서 김한종 군수와 조상길 지부장, 장성군 지 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군 11개 지역아동센터에 행복나눔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.

이번 기부는 '농심천심' 운동의 일환으 로 농업・농촌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따 뜻한 상생 문화가 확산이 되길 바라는 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 음으로 진행됐다.

조상길 지부장은 "지역아동센터가 아동 들의 돌봄 · 교육지원 · 사회성 발달을 지원 하고, 사회적 격치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"며 "배움과 도움이 절실한 아동들이 꿈을 펼치는 데



한편 농심천심 운동은 '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'이라는 의미로, 소중한 먹거리 를 공급하는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인의 삶터이자 도시민의 쉼터인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범 국민운동이다. 이승홍 기자 photo25@

## 신협, '모아모아통장' 누적 계좌 17만건 돌파

출시 9개월 만…최고 연 4.5% 금리 혜택

상품인 '모아모아통장'이 출시 9개월 만 다. 50만원 이하 예치 시 기본 연 3.5%가 에 누적 계좌 17만1000건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.

MZ세대 맞춤형 파킹통장으로, 간편한 절 차와 높은 금리 혜택을 앞세워 젊은 층 사 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. 만 17세 이상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협 모바일뱅킹 앱 '온(ON) 뱅크' 또는 '리온브랜치'를 통해 1인 1계좌로 비대면 가입할 수 있다.

상품은 예치금 구간별 차등금리를 적용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도

신협중앙회는 고금리 수시입출금 예금 해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 적용되며, 신규 고객은 1.0%p 우대금리 를 더해 최고 연 4.5%까지 받을 수 있다. 지난해 12월 출시된 '모아모아통장'은 50만원 초과~300만원 이하는 연 1.6%, 300만원 초과~500만원 이하는 연 2.5%, 500만원 초과 금액에는 연 1.0%가 적용 된다. 또한 온뱅크 앱을 통해 매일 지급되 는 이자를 확인할 수 있어 금리 혜택을 직 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.

신협은 지난달 23일부터 입출금통장

진행하고 있다. 모든 입출금통장 (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) 개설 후 2개월간 평균 잔액 10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 응모를 통 해 100만원(1명) 또는 1만원(2000명)을 지급한다. 이벤트 참여는 포스터 QR코드 또는 온뱅크 앱 내 '응모하기' 버튼을 통 해 가능하며, 캐시백은 12월 말까지 개설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.

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"신협 입출금통장을 이용하는 고객께 감 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 련했다"며 "앞으로도 고객의 수요에 부 합하는 맞춤형 금융상품과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"고 말했다.

이승홍 기자 photo25@gwangnam.co.kr

4대 은행(KB국민·신한·우리·NH농 협)의 실버바 판매액은 지난달 42억7000 한국금거래소 관계 만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억원

이달에도 지난 1~2일 이틀 만에 20억 물 자산인 금으로 투자 2200만원이 팔리는 등 열기가 높아지고

국제 은 가격도 지난주 현물 기준으로 투자로서 금의 인기가 높아 온스당 50달러 선을 웃돌며 사상 최고치까

이산하기자 goback@gwangnam.co.kr

#### 전국 별정우체국 5곳 중 1곳 화재보험 미가입 지원 필요

전국 별정우체국의 5곳 중 1곳이 화재 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된 가 운데 재난 상황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받 을 수 없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.

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 소속 한민수 의원(서울 강북구을)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별정 우체국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전 국 별정우체국 674국 중 143국(21%)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로 확인됐다.

별정우체국은 국가로부터 우편서비스 를 위탁받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만 재난 피해 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.

올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북 안 동 남선면에 위치한 별정우체국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. 재산 피해는 1억2000만여원으로 집계됐다.

남선우체국은 곧바로 피해 구제 신청에 나섰다.

하지만 지자체는 '정부 부처 공공시설은 지원 불가', 정부는 '공공시설물 복구는 우 정사업본부 소관', 우정사업본부는 '건물 이 사유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'라는 입장을 밝히며, 재난 피해를 당한 별정우 체국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피했다.

이외에도 올해 별정 우체국 5곳(광주 시•아산시•함안군등)이홍수등재난피 해를 봤지만 지원받지 못했다.

5곳의 총피해액은 7200만여원으로 알 려졌다.

한민수 의원은 "우정사업본부가 보험 료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 송태영 기자 sty1235@

